

시론

세종, 민복(民福)의 꿈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다. 한글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세종대왕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은 한글 창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담아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한문은 무지한 백성이 배우고, 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자다. 세종은 백성들이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유학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표기법을 갖춘 한글을 창제했다. 한글 창제의 근원은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는 민복(民福)의 마음인 것이다.

세종은 한글 창제 후 석가모니의 공덕을 칭송한 찬불가를 모아놓은 ‘월인천강지곡’을 직접 썼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 통치의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불교를 탄압했다. 하지만 고려 시대부터 불교를 믿어오던 백성은 유교보다는 여전히 불교를 믿고 따르며 ‘민중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를 알았던 세종은 한글 창제 후 공자나 맹자를 칭송하는 유교 서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더욱더 가깝게 입을 수 있는 불교 서적을 가장 먼저 집필한 것으로, 이 또한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민복의 마음이다.

제573돌 한글날을 맞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온갖 거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유튜브 등 개인 인터넷방송에서는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을 넘어 저주가 넘쳐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심지어 콘텐츠를 조작하면서까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글 창제를 통해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꿈꿨던 세종의 꿈! 내년 한글날에는 우리 국민 사이, 그리고 남과 북 사이 평화롭고 따뜻한 말이 많아지고 세종의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기를 소원한다.

하와이지부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

에덴한글학교 인지원 학생 영예의 최우수상 수상



하와이지부(회장 이한종)는 9월 21일 오아후섬 호놀룰루에 위치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제8회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마다 광복절을 전후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금 주호놀룰루 부총영사를 비롯해 각 한인단체장들과 한글학교 학생들 등 1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태극기 모양 묘사력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담은 표현력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에덴한글학교의 인지원 학생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국지부 임원진 본부 방문



영국지부(회장 오현균) 임원진이 10월 7일 본부를 방문해 박종환 총재와 간담회를 가졌다.

KFF글로벌리더연합 시·도대표 간담회

한국자유총연맹 KFF글로벌리더연합이 10월 10일 본부 회의실에서 시·도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리더연합 시·도대표 9명 등 20명이 참가한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시·도별 상반기 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하반기 주력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장학금과 취업지원 등 회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 청년협의회 해외봉사 활동

전국 시도 청년협의회(회장 장기식)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몽골 울란바타르시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기식 회장 등 10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단은 보육원과 청소년개발센터를 방문해 의약품과 학용품, 축구공 등의 성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12면>

10~11월 지방조직 주요 활동계획(10.17~11.14)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여성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10.30	강남프리마호텔	1000명
	안보현장 견학(은평구)	10.31	평택 제2함대 사령부	45명
부산	통일 토크콘서트	10.25	부산자유회관	50명
	탈북민과 함께하는 해외 전적지 탐방(사하구)	10.25-29	베트남	40명
대구	여성협의회 자선바자회	10.22	낙동강승전기념관	250명
	학도의용군 추념식	10.30	낙동강승전기념관	200명
인천	사회악 근절 캠페인(동구)	10.29	송림로터리 일대	50명
	환경정화 활동(서구)	10.31	인천아시아드경기장	50명
광주	안보교육 및 한마음대회(남구)	10.31	부산 UN기념공원	40명
대전	환경정화 캠페인(동구)	10.19	식장산	100명
	통일마중물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10.19	관내 저소득층 가정	20명
울산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10.30	남산사	200명
	통일마중물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10.26	도담동 수혜자 가정	20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한마음대회(하남시)	10.20	미사동 풀하우스	100명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수원시)	10.30	경기자유회관 광장	200명
강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10.31	강원자유회관 광장	200명
충북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청주시)	10.23	솔밭공원 자유수호탑	300명
충남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홍성군)	10.28	충령사충령탑 앞	400명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공주시)	10.28	충남통일관	300명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태안군)	10.30	이종일생가	250명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보령시)	10.30	남포이연이재고개	200명
전북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남원시)	11.1	광한루 충혼비	200명
전남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곡성군)	10.29	반공위령탑	70명
경북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청송군)	10.25	청송방공위령탑	200명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김천시)	10.30	충효길 위령비	300명
제주	조직간부 안보현장 견학	10.22-24	대구·경북일대 전적지	70명